광주시, 국산 AI반도체 개발 사업 '앞장'

㈜광주테크노파크·NHN컨소시엄 공모 선정

전문기업·기관 참여…응용서비스 실증 추진

광주시가 '스마트가전용 AI SoC 기술개발 사업'과 'AI반도체 실증지원사업' 공모에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이 주관하는 '스마트가전용 AI SoC 기술개발 사업' 공모에 (재)광주테크노파크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주관하는 'AI반도체 실증지원사업'에도 NHN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다.

'스마트가전용 AI SoC 기술개발 사업'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지역 가전산업의 스마트가전 제품 기술개발 촉진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며, 오는 2024년까지 총 사업비 77억원(국비 45억, 지방비 10억, 민자 22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시가 지역 가전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들 대부분이 인공지능 솔루션 기반의 다양한 제품·서비스에 대한 의지는 있으나, 시스템 구현 및 반도체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시는 반도체 설계에 전문화되어 있고, 제조 설비는 갖추고 있지 않은 수도권 내 팹리스(Fabless) 기업과 협력해 스마트가전용 AI반도체를 개발하고 지역 가전기업을 대상으로 실증에 나설 계획이다.

이 사업에는 국내외 35개의 특허를 보유한 영상처리 기반 반도체 팹리스 ㈜아이닉스, 인공지능 플랫폼 개발 전문기업 ㈜솔빛시스템, 광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종합 가전제품 기업 ㈜위니아딤채, 지역 인공지능 전문기업 ㈜넷온과 (재)광주테크노파크 등 전문 기업·기관이 참여한다.

이와 더불어 시는 인공지능기술과 융합해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성장 가능한 데이터센터용 반도체, 스마트가전, 미래형자동차 등 신산업 분야에 국산 AI반도체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 인프라 거점 조성을 위해 적극 나설 예정이다.

'AI반도체 실증지원사업'은 국비 22억원을 지원 받아 2년 간 인공지능·데이터 생태계의 핵심기반인 AI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시는 국내 기술로 개발한 AI반도체 활용 및 확산을 위한 기술 실증 지원을 수행한다.

AI반도체는 인공지능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대규모 연산을 초고속, 저전력으로 실행하는 지능형 비메모리 반도체로서 다수의 국내 기업과 연구소에서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나, 다양한 AI 응용 서비스에 필요한 레퍼런스 확보 및 실증에 어려움이 있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사업을 추진하는 NHN 컨소시엄은 광주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운영 사업자인 NHN㈜를 주관으로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한 AI반도체를 출시한 SK텔레콤㈜, 인공지능산업융합 사업단(AICA) 등 전문 기업·기관이 함께 참여한 민관 협력형 모델이다.

시는 NHN 컨소시엄과 함께 AI반도체 기반 서버 구축 및 응용 서비스 기술 실증 등을 지원하고 광주에 구축예정인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연계해 국산 AI반도체 원천기술 확보, 관련 기술 확산 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광주가 인공지능·데이터 생태계의 핵심 기반이자 국산 AI반도체 활용 거점으로 새롭게 부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경종 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광주에서 인공지능·데이터 생태계의 핵심기반인 AI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국회 현안 논의 나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본회의 개의 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28 남해안남중권 유치 지지 잇따라

충남·전북지사 성명 발표 총 8개 지자체로 늘어

전남도가 경남도와 함께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남중권에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8) 유치를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다른 시·도의 지지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남해안남중권은 전남지역 여수, 순천, 광양, 구례, 고흥, 보성, 6개 시군과 경남지역 진주, 사천, 고성, 남해, 하동, 산청, 6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 광주시, 경북도에 이어 제14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COP28 남해안남중권 공동개최를 지지하는 성명서에 지난 7일 서명했다.

성명서는 'COP28 남해안 남중권 공동개최는 동서화합과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대한민국 미래의 천년과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고, 전북도는 COP28 남해안 남중권 공동개최를 적극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지난 4월 양승조 충남도지사도 'COP28 남해안 남중권 공동개최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전 세계에 보여 줄 수 있으므로 남해안 남중권 공동개최를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보내왔다.

이로써 남해안남중권 공동개최를 지지하는 지자체는 전남과 경남을 포함하면 8곳으로, 17개 지자체 중 과반에 가까워졌다.

김정완 전남도 COP28유치추진단장은 "COP28 남해안남중권 공동개최를 지지해준 분들께 감사하다"며 "2023년 개최될 COP28을 남해안남중권에 유치하도록 정부 및 지자체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대구서 세계인권기록물 순회전시 개막

대구시장, 주한아르헨티나대사관 참사 등 참석

5·18민주화운동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0주년을 맞이해 '세계인권기록물 순회전시'가 대구 경북대학교에서 10일 개막했다.

광주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이 주최하고 경북대학교 대학기록관이 후원하는 이번 세계인권기록물 순회전시는 '인권-보편적 가치, 문화적 기억으로'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지역, 정치적 한계를 넘어 세계인이 공유하는 인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국가 중 12개국의 국가로부터 반인륜적 탄압과 국가에 맞서 투쟁한 이들의 기억을 담은 기록물들을 조명해 전시한다.

이날 개막식에는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을 비롯해 5·18민주화운동과 같이 아픈 현대사를 가진 아르헨티나가 다른 나라를 대표해 주한아르헨티나대사관에서 훌리안 까네사(Julian Canessa) 참사가 참석했다.

전시는 대구 경북대학교에서 7월4일까지 진행하며,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전시관람 문의사항은 경북대학교 대학기록관(053-950-4742)으로 연락하면 된다. /오지현 기자

올해 산업단지 현황 책자 발간

광주시, 400부 유관기관 배포

광주시는 '2021년도 산업단지 현황' 책자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책자에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 광주시 관내 산업단지에 대한 일반현황과 산단 내외 입주업체 리스트, 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시는 이번 발행한 책자가 관련 기업과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2020년 준공된 빛그린산단과 평동3차산단 조성현황, 입주가능업종 및 입주기업 현황이 새롭게 반영됐다.

시는 400부를 유관기관, 자치구, 산업단지 관리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오지현 기자

전남 조류독감 이동제한 조치 해제

9개 시·군 21건 발생, 381만마리 살처분

전남 22개 시·군 모든 지역의 가금류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됐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AI(조류인플루엔자)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이동제한도 모두 해제했다.

전남지역에서는 지난달 6일 장흥 장평면 육용오리 농장을 마지막으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30일 이상 추가 발생이 없었다.

기존에 AI가 발생했던 장흥군 장평면과 나주시 산포면 오리농장 인근 10㎞ 내 방역지역의 모든 가금농가에 대한 검사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전남도는 AI가 발생한 농장의 재입식을 위한 세척과 소독, 입식시험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오리농장 입식 전 방역실태 점검과 출하 전 정밀검사를 지속한다.

방역 취약지역인 전통시장과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도 집중 소독 등 차단방역체계를 유지한다.

전남에선 지난해 12월4일 영암을 시작으로 9개 시군에서 21건(닭 3·오리 18)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97개 농가에서 가금류 381만마리(닭 32농가 268만 마리·오리 65농가 113만 마리)가 살처분됐다.

살처분 처리 비용으로 113억원, 보상금으로 190억원 등 총 30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특별방역기간 이전까지 농가 방역과 소독시설 등을 사전 점검하고 가금농가 AI 차단방역 실천 교육을 지속할 계획이다"며 "방역 대책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기관, 단체 간담회 등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5월 18일 '지방 공휴일' 동참

시, 공공·민간에 휴무 독려

광주시가 지방 공휴일로 지정한 5월 18일 민주화운동 기념일 휴무와 추모 동참을 독려하고 있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로 두 번째인 지방 공휴일에 민원 부서는 절반, 일반 부서는 20%만 출근해 근무한다.

광주 5개 자치구도 근무 인원을 조정해 상당수 직원이 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월 18일 당시에는 광주시에만 관련 조례가 제정돼 자치구에서는 이번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뒤 처음으로 시행하는 지방 공휴일이다.

광주시는 '5·18 휴무'를 공공뿐 아니라 민간 부문에까지 확산하려고 공공 기관을 비롯해 각급 학교, 기관·단체, 민간 기업에도 동참을 독려하고 있다.

광주시는 또 지난해 8월 개정한 '광주시 국기의 조기 게양 조례'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5·18 추모 기간에는 조기를 달도록 홍보하고 있다. /오지현 기자

전매광고안내
전남매일 광고는 전화 및 팩스로 받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구인·구직·모집·매매·부동산·공고·영업·분양·모임
• 광고국 062) 720-1016, 1017
• 팩 스 062) 720-1020
• 이메일 jnmi1000@hanmail.net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 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남 신안군 하의면 대리 산41
2. **분묘기수** : 무연고 묘지 4개소
3.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완료후 임의개장
5. **개장장소** : 전남 목포시 대양동 764-9
   목포추모공원목포추모관휴
6. **안치기간** : 봉안후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8. **공 고 인** : 전남 신안군 하의면 곰실길 11-55
   김정희 (010-9430-6631)
9. **신고요령**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촬영) 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서류, 인감증명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10. **기타사항** : 추가 분묘개발시 본 공고에 갈음함.

2021. 5. 11

공고인 김정희

W 부실채권 못 받은 돈 회수전문
판결문, 공증, 공사대금, 각서
계약서, 입금내역, 각종 채권상담
선수금 출장비용 없슴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슴
채무자 재산, 신용, 주거래은행, 차량 등 파악
실거주지 파악,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연락두절 채무자 파악
개인 법인 신용조사 재산조사만 별도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원모집 신입·경력사원
영업팀 / 채권추심팀
▶지사오픈 상담◀
절차적 편의 법절차 준수 시간적 효율
호남지사 062-417-4720 / 010-3138-9972
JM 채권추심 전문법인
(주)제이엠신용정보